

투데이 칼럼

한반도 안보 변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이스라엘의 점령이 이어지면서 주요 강대국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찾아 확고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복잡한 국제 정세는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수백 명이 숨진 가자지구 병원 참사도 테러리스트들의 오발탄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도한 보복공격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완곡하게 전달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하마스의 피해자라며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날,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3시간에 걸친 이례적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 온 미국 등 서방국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정복규
논설위원

대해 자위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양국 방안을 기초로 협상을 재개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목소리를 내며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한반도에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어, 북한의 땅굴 기술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통해 하마스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리 군도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거래, 전술교리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미 1970년대 중동전에 북한은 이집트를 지원했다. 당시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의 후원 세력이었다. 하마스 사태는 한국과 유사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북한이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전쟁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진영 간 대립 구도 역시 한반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미국은 북 러 간 무기 거래가 북러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며 폭로했다.

이어진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서는 북러 무기 거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들은 항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관련 사실을 일축했다.

그리고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이어서 닷새 뒤에는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전개돼 처음으로 우리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B-52를 필두로 한 한미일 공군의 첫 연합공중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날, 러시아도 보란듯이 전략폭격기 2대를 동해상으로 전개하고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전략자산은 첫 소멸 대상이라며 한미가 핵전쟁 도발을 겁어온 만큼 그에 상응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미국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 등 두개의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며 대규모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지 여파는 식어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적 분쟁과 전쟁 속에서 강대국들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외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송고란 문화유산 등재, 축하하는 타워신 태국 총리



세타 타워신 태국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시청 앞 광장에서 태국 새해 명절 축제 '송고란'의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재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물 축제로 유명한 '송고란'은 지난 8일 보츠와나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18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송고란은 기원전 '본', 전통 미시지 남부 전통무용 '노라' 등에 이어 태국의 네 번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다.

워싱턴포스트 노조, 24시간 한시 파업



지난 7일(현지시각) 워싱턴 시내에 있는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사옥 앞에서 노조 회원들이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다. WP 노조는 사측과의 계약 협상 등에 대한 갈등으로 24시간 동안 한시적 파업에 돌입했다.

사설

수도 확장 메가시티 허상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구체화된 서울의 메가시티 구상은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주변 도시들을 서울의 자치구로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그만큼 서울시의 면적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메가시티로 자주 언급되는 프랑스의 '그랑파리 프로젝트'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2016년 파리 주변 131개 기초자치단체가 11개 관할구역으로 크게 묶여 그랑파리 메트로폴이라는 행정기구가 됐다.

파리와 그랑파리는 엄연히 별개의 조직이다. 파리를 확대한 게 아니다. 파리와 주변 지역의 연대를 강화해, 경제적 기능과 교통망 등을 개선한 것이다.

중국도 2014년부터 베이징과 주변의 텐진, 허베이성을 묶어서 추진 중인 '정진지 일체화 전략'도 메가시티로 언급된다. 이곳 역시 베이징과 주변 도시

들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다.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2010년 2대 도시인 오사카와 주변의 교토, 고베 등 12개 자치단체가 구성된 간사이 광역연합이 있다.

각 지자체는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함께 가입해 재난과 의료, 산업, 환경 문제 등에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도시가 편입되거나 통합된 게 아니다.

일종의 연합체 형태이다. 특히 수도권 도쿄 집중에 맞서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수도를 확대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르다. 세계적인 메가시티 추세는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기능적인 연계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변도시를 편입해 면적을 키우는 방식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북도 노인일자리 앱 활용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노인 일자리 구인·구직 앱 '전북노인일자리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앱은 기존 일자리 관련 앱과는 다르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전용이다.

4대 보험 미 가입 농촌지역, 일용직, 단기직 등 구인·구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전북노인일자리 앱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도내 14개 시 군 도민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북노인일자리센터를 다운받아서 간단한 회원 가입을 한다. 그리고 60+구인정보 메뉴의 해당 시군에 들어가 일자리를 신청하면 된다.

언제 어디서든 간단한 터치만으로 노인 채용 구인 정보 및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관련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직을 등록했다.

개별 전화 또는 방문으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으로 나에게 맞는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노인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등 은퇴를 앞둔 장년층 증가와 자녀들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구인구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앱 활용이 중요하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앱은 60세 이상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 정보를 실시간 업로드하고 있다.

노인 취업 관련 교육 접수는 물론 노인일자리 및 교육영상 시청,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생신품 안내와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취업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이동 상담 홍보도 있다. 이제는 앱을 활용한 구직 활동을 적극 전파해야 할 때이다. 앱 활성화로 노인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